

대한양계협회 소식

제 1 회 가축질병에 관한 심포지움 성황리에 마쳐

— 수원 농촌진흥청 도서관에서 —

대한 양계협회와 농촌진흥청

공동주최로 지난 5월 15일 수원 농촌진흥청 도서관 회의실에서 제 1 회 가축질병에 관한 심포지움 중 '닭질병 발생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8명의 강사와 내외 귀빈 및 180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첫날인 13일에는 낙농에 관한 연제로 열렸고, 둘째날인 14일에는 양돈에 관하여 그리고 셋째날인 15일 (금)에 가금질병에 관하여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상운 본회 회장직무대행의 인사말에 이어 강연이 진행되었는데 이날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계의 생산성과 생산성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박 근식(가축위생 연구소 제역 연구담당관)
2. 부화위생의 중요성과 부화위생의 실태.....박 근식(가축위생 연구소 제역 연구담당관)
3. 산란저하증 '76의 특성 및 국내발생 상황.....이 영옥(가축위생 연구소 연구관)
4. 만성 호흡기병의 감염실태.....남궁선(가축위생 연구소 연구관)
5. 뉴캐슬병 발생 상황과 예방.....김 순



재(가축위생 연구소 연구관)

6. 닭 중앙성 질병.....최 정옥(가축위생 연구소 전문연구원)

7. 닭병성감정과 세균성 질병에 대한 약제 선발.....김 기석(가축위생 연구소 연구사)

8. 외래성 질병 발생양태와 대책.....김 선중(서울대 수의대 교수)

그리고 강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종합토의가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의 질문은 상당히 진지하였고 강사들은 성의있게 답변하여 이날의 열기를 다분히 느끼게 하였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5월호와 7월호에 나누어 각각 게재하고 있다.

본 심포지움은 친호부회장, <주> 중앙케미칼, 신기농장에서 각각 협찬했다.

네덜란드 농수산부에서 본 협회내방

- 해외시장부 루레. 게이스씨 -

지난 5월 20일 네덜란드 농수산부의 루레. 게이스(CEES D. ROELE) 씨가 본 협회를 방문하였다.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국·화란 공동 세미나의 사전 준비차 방한한 그는 본 협회의 역할과 한국의 양계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9월의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상호간의 농업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본 협회의 종계등록 사업이나 검정사업, 그리고 월간양계 발간 사업과 한국 양계 경영의 제반 문제 등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비교적 소상하게 물어가며 이것 저것을 조사하였다.

감별사 자격시험 실시

— 금년도 제 1 차로 —



△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태인)는 지난 6월 5일 감별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지난 6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금년도 제 1 차 감별사 자격시험에서는 감중감별사 19명, 고등 감별사 3 명이 합격되었다.

작년보다 시험규정이 강화되고서 처음 실시된 이날 시험결과는 합격율에 있어 대단히

저조한 편이나 감사별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는 업계의 이야기이다. 감별사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감별사 해외 취업확대 권익보호를 위해 새로운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는 본회는 감별분과 위원회(위원장: 정태인)의 자발적 활동에 힘입어 여러가지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감별사는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스스로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겠다.

이번 시험에서 합격된 감별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 감중 감별사 합격자

이훈우, 박상준, 백호인, 서정섭, 이우찬, 김종배, 강정구, 김영술, 윤성호, 정상일, 박순자, 김윤근, 김재영, 차부용, 서성덕, 김성애, 최 선, 양윤환, 임용우, (이상 19명)

나, 고등 감별사 합격자.

김일현, 박상준, 권남환, (이상 3명)

상기 합격자는 입회비를 지참하고 본회에 입회절차를 밟은뒤 본회에서 자격증을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양계협회 소식

농촌 일손 돕기로 모내기 참여
- 본회 전직원, 경기 강화도에서 -



△ 본회 임직원들의 모내기 광경

대한양계협회 임직원 일동은 지난 5월 28일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망월 3리에서 모내기 참여함으로써 농촌 일손을 돕는 데 앞장섰다. 이날 약 6시간여에 걸쳐 2,000여명의 눈에 모를 내었는데, 바람이 심한 관계로 다소 애로는 있었으나 상호 합심하여 일손이 바쁜 농촌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저하는 결의로 작업에 임했다. 이날 모내기에는 본회 이외에 한국낙농비육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양봉협동조합, 한국유가공협회 등도 참가하였다.



대한양계협회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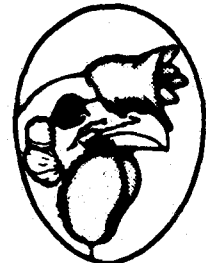
편집국에 金熙鎭(건대 축산과졸, 사진)씨를 특채.

광 주 부 화 장



바 브 콕

B-300V



DEKALB 와렌 G



하 바 드

사무실
전남 광주시 서구 양립동 8-15번지
전화 ⑧ 1107